

말썽 많던 '순천 출렁다리', 도심 흐르는 동천 위에 설치 완료

봉화산 둘레길에서 환경단체 반발로 설치 장소 변경

총 사업비 33억7900만원 투입...누구나 이용 가능

순천시 봉화산 둘레길에 설치하려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출렁다리가 도시를 흐르는 동천위에 설치됐다.

순천시는 오전동 동천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그린웨이)를 연결하는 동천 출렁다리 조성공사 마치고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동천 출렁다리는 준공 전 구멍 뚫린 바닥 판이 지팡이를 든 노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마쳤다.

허석 순천시장은 개통전 동천 출렁다리를 방문해 기능보강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청 관계부서에 다리 주변 경관과 어울

리면서도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주문했다.

출렁다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등산로, 하천, 호수, 바닷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물로서 이용에 한계가 있으나, 동천 출렁다리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보행교로 기능을 겸해 제작됐다.

총 사업비 33억7900만 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했으며 동천 팔마대교(남산로)에서 동천교(남승룡로) 사이 약 1km 구간 중간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도심 가까운 곳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돼 언택트 시대

에 겪을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출렁다리는 동천산책로 이용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사장과 도시를 잇는 다리로서 동천저류지에 설치될 전국 최대야시장 활성화와 2023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7년 출렁다리 설치비 25억 원, 인근 철죽동산 등 부대공사 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 좌경골 계곡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의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라는 이유와 환경 파괴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봉화산에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전율과 모



협을 체험하는 명소 및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시는 반대 의견이 고개 등자

고심끝에 동천위에 설치장소를 변경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가을빛 물든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핑크물리 물결

팜파스 그라스도 식재돼 가을하늘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사회적거리두기 속 11일까지 땅끝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 개방



깊어가는 가을, 전남 해남군 현산면의 4est(포레스트)수목원에 핑크물리와 팜파스 그라스가 만개해 동화같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분홍여새라고도 불리는 핑크물리는 가을에 분홍과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데 일명 인생샷을 만드는 사진 배경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핑크물리 단지 뒤로는 키가 3m까지 자라는 팜파스 그라스가 식재돼 맑은 가을하늘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이동자제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야외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포함한 오는 11일 한글날 연휴기간까지 땅끝전망대와 우수영관광지, 해남 공룡박물관, 고산유적지, 두륜미로파크, 양한목 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를 개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의 경우 이용객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발열검사와 방역물품 착용,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활동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관광지 등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접종' 광주·전남 401명

이상증상 신고 없어

운송 중 상온 노출로 사용이 중단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자가 광주와 전남지역 총 401건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상온 노출된 독감백신 13~18세 접종자는 광주 361명, 전남 40명으로 이날 현재까지 이상 증상 호소 신고는 없다.

광주의 경우 상온 노출 독감백신 사용이 중단된 지난날 22일 4개기관에서 35건의 접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같은날 28일 5명이 추가

됐고 이날 기준 총 361명으로 증가했다.

접종현황은 중단된 22일 이전이 302명이며 중단이후 5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같은 기준 2개기관 31명에서 이날 40명으로 늘었다.

광주시는 독감백신 접종을 위해 402개 기관에 7만6500도즈를 위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용 중지된 독감백신으로 사용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상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만큼 상온 노출 독감백신을 접종한 접종자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지붕없는 박물관' 목포시, 개항문화거리 조성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불리는 목포시의 원도심 일대가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1897 개항문화거리'로 조성된다.

목포는 1897년 10월 자주적 개항을 통해 근대도시로 본격 성장하면서 원도심 일원도 동반 성장했다. 유달산에서 근대역사관 1·2관 방향으로 펼쳐진 목포 원도심 일원은 100년전 목포의 최고 번화가로 근대역사문화원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곳은 2018년 8월 전국 최초 공간단위 문화재(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718호)로 등록됐으며, 2019~2023년 500억원

의 사업비를 들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반마련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근대문화자산 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목포 100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목포시 원도심 일원은 지난 2017년 정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9개의 마중물 사업에 총 사업비 316억5000만원을 투입해 만호·유달동 일원 29만㎡가 새롭게 단장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